킹제임스 성경학교

성경강해 SR#1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송 요 셉

제 4 강의 :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 4 : 출애굽기 16:1 ~15

그들이 엘림을 떠나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오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후 둘째 달 십오 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솥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 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의 두 배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저녁이면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께 대하여 하는 너희의 불평을 그가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하고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어 너희에게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대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해서 함이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 주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더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의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19

나는 광야에서 감사를 할 것인가, 불평을 할 것인가?◀

오늘은 출애굽기 16 장 1 절~15 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광야'로 나왔지요.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낯이 설고 생활이 바뀌게 되지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할 때 결국은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공급해주시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광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는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패닉 예배 때 어떤 분이 헌금을 드리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폐업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감사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은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빵을 먹었지만, 고기는 배불리 못 먹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고 마늘과 부추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나온 후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당연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신 것"** 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무슨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이 없었고 유대인들은 자세히 읽지 않았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뜻을 몰랐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토라를 자세히 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토라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가서 말씀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못 듣게 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많은데 유대의 랍비들은 그것을 금합니다. 예수를 믿을까봐 못 듣게 하는 것이지요.

그 생명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생이신 그리스도이셨다◀

본문은, 앞으로 **『생명의 빵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바랬는데 사막에서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완전히 사막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부터 빵을 내려주고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생명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그 생명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생명의 빵은 영생입니다. 세상에서 생명은 '목숨, 목에 숨이 붙어있는 것' 정도로 알지만, **"하나님 말씀인『생명은 →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신이 그들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① 썩지 않는 음식 : 영생에 이르는 음식◀

본문 말씀과 관련해 요한복음 6 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 장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출애굽기에서 광야생활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27 절입니다.

27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 구약 시대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듯이, 신약 시대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썩지 않을 음식—말씀"을 주셨습니다.

20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② 믿고 먹을 때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음식◀

28 그들이 주께 말씀 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이까?" 라고 하니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 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좀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그만둡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쉬시면 우리도 쉬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일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은 말씀, 생명의 빵을 먹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③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으로서의 음식◀

30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 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 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31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니

→ 그들은 믿을만한 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물리적인 빵인 만나가 표적이었지요. 신약 시대에 하늘에서 빵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영적인 그 빵이 말씀이신 주님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만나와도 같은 표적이었습니다. 주님 자체가, 주님의 말씀 자체가 기사와 이적 아니십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④ 주님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빵이심을 말씀하심◀

32 그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33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시니라 34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 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라고 하니 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가 바로 그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리 아니하니라

→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리기는 했지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영이 사는 음식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들어갈 것만을 많이 구합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⑤ 보고도 믿지 않는 생명의 빵◀

36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고 했느니라

→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때 유대인들이 생명의 빵이 앞에 있는데 다른 걸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생명은 주님인데, 주님만 많이 먹으면

되는데, 말씀을 많이 먹고 힘을 내면 다른 건 생기는데, 이걸 모르고 먼저 썩을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경지에 오르지 못합니다.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마음이 길거리 같으니까, 마음밭이 돌짝밭 같으니까 마귀가 말씀을 다 먹어가지고 말씀이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버리는 가시덤블이지요. 요즘에 마지막 때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걱정 근심하다가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주님을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1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⑥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생명의 빵◀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 임이라

→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내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⑦ 마지막 날에 살리는 생명의 빵◀

39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 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40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볼 수 없지요.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시대별로 다릅니다. A 그 때는 아들을 보고 믿었고, B 지금은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C 앞으로 마지막 날에, 환란 때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 하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야기이지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입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⑧ 믿지 못해 수근거리는 자들이 가진 생명의 빵◀

41 그 때에 유대인들이 주에 관해서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42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43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와서 배불리 먹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지를 몰라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니 의심할 수 밖에 없지요. 생명의 빵,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도 그들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처럼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전해졌다"고 한데서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나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생명의 빵인 말씀을 먹지 못해 성령이 없는 사람은 →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의 빵, 보고도 먹지 못하는 빵을 눈 앞에 두고만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22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⑨ 배워서 깨달아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생명의 빵◀

45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 내게로 오리라"** 46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즉 "나는 나다" 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했지요. 그 때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잠시 동안 죄를 덮어줬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덮기만 하는 거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지요. 죄를 덮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약속은 임시이고, 아들을 보낼 때까지 1500 년 동안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옷을 입혀 잠시 동안 죄를 덮었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릴 때 아담으로부터 구약 시대 짐승의 피로 죄를 가렸던 많은 성도들이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했습니다. 모르지요. 누가 부활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잠자던 성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진짜 왕으로서 오신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미 일어난 첫 번째 휴거로 그들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자세히 읽고 배우면, 즉 말씀을 공부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고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산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영이 죽고 살고 하는 것과 관련해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의 혼이었지요. 쉽게 말해서, 전구에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듯,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혼 — living soul"이 된 것입니다. 이걸 개역이 "생령 — living spirit"이 되었다고 해서 오해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리빙 쏘울"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역은 "리빙 스피릿" 으로 되어있습니다. 창조로 혼은 살아있고 범죄함으로 영은 죽었지요. 어느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영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아니예요. 영은 죽었는데 예수 믿어 살잖아요?"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아니야, 영은 살아 있어!" 그러더랍니다. 개역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답한 거지요. 각자 입장에서는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이 잘못되면 이처럼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왜 산 혼을 산 영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생명의 빵을 먹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다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걸 안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그 교회를 안 다닙니다. 성경을 틀리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⑩ 예수님을 죽이고 얻는 생명의 빵◀

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48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49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50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52
그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5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 "가졌나니" 하시며 현재형을 쓰신 것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놓치면 안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죽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인데,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⑪ 벌레 죽이듯 예수님을 죽이고 얻는 생명의 빵◀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55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57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 먹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하니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시편 22 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이니이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짖이겨진 벌레처럼 만신창이가 나고 찢기고 피범벅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죽이고 그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⑫ 다시 올라갈 생명의 빵◀

59 이런 일들은 주께서 카퍼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60 그 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6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62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 여기의 "제자들"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사도 이외의 다른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70 명을 둘씩 짝 지워 보내셨지요. 그들이 봤습니다. 내려오신 것은 못 알아봐도 올라가신 것은 500 여명이 봤지요. 눈으로 못 본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⑬ 살리는 영인 생명의 빵◀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다면 영도 살아야 합니다. 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혼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 같이 될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 같이 될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구덩이"는 히브리 말로 "스올, 지옥"이지요. 영이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만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영이 살아나야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⑭ 먹지 못하면 떠나는 생명의 빵◀

64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65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66 그 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떠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설교자들은 항상 성도들이 주님을 먹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닫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주님을 먹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니까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밤 열 두 시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날 그 내용이 살아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자들로 보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말만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전할 때 만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Are you saved?" 하고 물으면 "Yes, I'm a born again christian!" 할 때 "Oh, my br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녀보면, 다른 나라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빵 신약의 빵 생명의 빵 — 빵빵빵 ⑮ 배반자들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빵◀

67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68 그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69 우리는 주께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70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71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유다는 주님을 팔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마귀도 쓰십니다.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도 심판을 하시기 위해 쓰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나면 다 버리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심판 받을 사람들이 생명의 빵을 누룩이 들어간 죽음의 빵으로 바꿔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빵은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의 빵은 깜깜한 어두움 속에 비추어진 생명의 빛이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나를 보고 그들이 "이게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 물음이 이름이 되었지요. "만나"는 "이게 뭐냐?"는 뜻입니다. 그들의 그 소리가 꼭 요즘에 "복음이 뭐야? 하나님이, 말씀이 뭐야?" 하는 사람들 목소리 같이 들립니다. "내가 배고픈데,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맛나를 못 알아본 것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전 까지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것을 다 먹은 다음에 아무 것도 없었을 때, 만나가 내려오니까 세상천지에 먹을 것이라고는 그 만나 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 장 1 절~5 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몰랐던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이다◀

주님이 오셨을 때 생명은 그 분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그 생명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비추셨지만,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을 불러서 그 빛에 관해서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11,12 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25

제가 이 말씀을 구원 받고 읽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실 때 …. " 하는 노래를 듣고,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까?" 한 적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므로 걱정이 없게 된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시편 23 편에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 여호와의 집에 "나도 영원히 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고생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이 안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이런 게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유 먹고 밥 먹고 야채 먹고 고기 먹어야 하지만 태양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 광선을 받아야 힘이 납니다. 그 태양빛이 없으면 비타민 D 라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 생명의 빛"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집 수영장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모여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천축지변의 울음이 터진다◀

요한복음 1 장 14 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천축지변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몸에 임해 우리 몸 안의 오장육보를 뒤흔들어놓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펄펄 뛰고 난리지요. 꼭 미친 사람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크게 우는 울음이 그쳐지고, 점점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면서 입도 열립니다. 그 첫 울음, 태어날 때의 기쁨은 요란스럽습니다. 그 요란스러움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입을 열어 외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생명을 비추는 거지요. 내 속의 의의 태양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겁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단 맛을 늘 맛보며 살라◀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어떤 것보다 귀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지요. 그 말씀만 따라갔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벌집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양봉을 했습니다. 벌집을 씹으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꿀이 들어있지요. 다윗도 말씀이 "꿀보다, 벌집보다 더 다나이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맛을 모르지요. 영적으로 고갈 되어 쓰기만 할 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비틀어져서 버려지고 불태워진다고 했습니다. 단물이 빠진 말라빠진 가지는 그렇게 됩니다. 말씀은 항상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힘이 없다가도 힘이 솟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부터 읽기 바랍니다. 잠언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지는 영양분이 풍성하게 됩니다.

권면과 당부◀

말씀을 맺으며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주님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고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걱정이 사라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설교 제목이 "고난이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 사라지고 고난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26

이스라엘에서 만난 67,8 세 정도 된 신사랑 목사님은 영어도, 히브리어도 모르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찬송을 하면서 손짓발짓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또 이스라엘이 테러로 위험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냐?"고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외국을 어떻게 다닙니까? 그 나라 말을 모르고, 돈이 없고 하는 따위의 이유를 들지요. 그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지요. 제가 다녀보니까 한국말만 잘하면 어디를 가나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달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알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2 찬송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은 코에 호흡만 나가면 끊어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고,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원수들에게 임하는 멸망을 내가 보리로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와도 괜찮은 겁니다. 저는 시편 13 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치고 기뻐하고 자긍할 때가 언제까지이니까 내가 내 혼과 더불어 상의해야 할 날이 언제까지이니이까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를 신뢰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공격합니다.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공격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중에 오니까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중에 오는 것을 알고, 원수의 공격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기쁨이 더 큰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만나처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힘이 없어지지만, "주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능력이 됨이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노래했듯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찬송을 드릴 때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 능력이 더 온전케 하려 함이라" 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벌써 베리칩을 받으라고 하지요. 어느 항공기 부품 회사는 베리칩을 안받은 사람은 한 달 내에 사표를 쓰라고 했고, 받은 사람은 연봉을 월 천불씩 올려준다고도 했습니다. 그걸 이마에 받으라는 거지요. 성경대로 되가는 것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하게 했다가 다 받게 하는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환란 때 안 받은 사람들을 박해하려는 것입니다. 병원, 군에서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다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될 지 아닐 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 공화당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의료보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이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했습니다. 한국에 한 달만 있으면 의료보험 가입이 되니까 돈 없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조금만 내면 수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들도 원정을 많이 가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앞에 그런 일이 현실로 닥칠지 모릅니다. 직원 600 명이 되는 회사에서 12 명만 안 받았다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있었으니까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게 닥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날이 갑자기 임하기 전에 다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